

“정보통신망 품질향상에 기여… 정보통신설비 국가경쟁력 향상”



문종배 수상자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KTICC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KT 및 한전KDN, 정보통신설비 생산업체 및 정보통신공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통신용 계측기의 정밀도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매년 계측기 정밀교정을 정기, 주기적으로 지원하여 왔다.

매년 정기, 주기적인 통신용 계측기 교정을 통하여 국내 통신망에 공급, 설치되는 각종 통신장비의 사전 품질확보와 운용시스템 프로세스 개선, 운용 인력의 기량 향상 등에 일조함으로써 국내 정보통신망 품질 향상에 기여했다.

특히, 2001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제1의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전국 300여개의 지사, 지점 등에서 보유, 사용 중인 1만6,000여대의 통신용 계측기의 정밀도 및 정확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정기, 주기적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교정, 유지보수 및 계측기 운용요령 교육 등을 수행함으로써 KT의 정보통신망 및 이동통신망의 유지보수 및 품질관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내 정보통신설비 생산업체 및 정보통신공사업체가 보유중인 각종 통신용 계측기에 대한 점검, 교정 등을 매년 실시하여 이 업체들이 수행하는 광통신망 구축공사, 일반 통신선로공사 등의 시공품질 향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문종배 사장은 국내 처음으로 이지스함 건조에 참여했다.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차에 걸쳐 국내 이지스함 건조에 소요되는 첨단통신 분야의 계측품질 컨설팅 및 계측장비 교정계약을 맺고 첨단통신 계측품질 기술력을 발휘했다. 이지스함 내 첨단통신장비에 대한 계측품질 컨설팅 참여로 이 분야에 대한 계측기술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첨단 방위산업의 통신분야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자신감과 성과를 거뒀다.

문종배 KTICC 사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정보통신망 품질향상 발전은 물론, 학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정보통신설비의 국가경쟁력을 크게 제고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창간 22주년 Hi-Tech Awards

◆주관 : 하이테크정보 ◆주최 : 하이테크어워드운영위원회 ◆일시 : 2011년 6월 29일(수) ◆장소 : 국방부 내 육군회관



하이테크정보 창간22주년기념 Hi-Tech Awards 수상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앞줄 좌측부터) 문종배 KTICC 사장, 김민수 엘에스웨어 사장, 조성갑 한국IT전문가협회 회장, 양승택 운영위원장, 윤충한 유니온앤이씨 사장, 김성만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회장, 한정섭 KCC정보통신 사장 (뒷줄 왼쪽부터) 김영실 본지 발행인, 박경양 하렉스인포텍 사장, 김계철 비온드아이티 사장, 추정호 퓨처누리 사장, 조중기 큐로컴 사장, 강봉원 우리에프아이에스 부장, 윤청화 토마토시스템 부장.

경영 김민수 (엘에스웨어) 사장	· 기술 이상돈 (토마토시스템) 사장
베스트콘텐츠 윤충한 (유니온앤이씨) 사장	· IT서비스 한정섭 (KCC정보통신) 사장
글로벌솔루션파트너 조중기 (큐로컴) 사장	· 베스트솔루션 추정호 (퓨처누리) 사장
금융정보화 강봉원 (우리FIS) 부장	· 모바일 박경양 (하렉스인포텍) 사장
IT전문가 김계철 (비온드아이티) 사장	· 정보통신설비 문종배 (KTICC) 사장

지난 6월 29일 국내 IT분야 오피니언 리더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지 창간22주년기념 '하이테크 어워드(Hi-Tech Awards)'가 국방부 내 육군회관에서 열려 관련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하이테크어워드심사위원회(위원장 양승택)와 본지(발행인 김영실, www.hitech.co.kr)가 선정한 이번 '하이테크 어워드' 행사에선 경영·기술·IT서비스·글로벌솔루션파트너·베스트솔루션·베스트콘텐츠·모바일·금융정보화·정보통신설비·IT전문가 등 총 10개 부문에 대한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

경영부문에는 김민수 엘에스웨어 사장이, 기술부문엔 이상돈 토마토시스템 사장이, IT서비스부문에는 한정섭 KCC정보통신 사장이, 글로벌솔루션파트너부문엔 조중기 큐로컴 사장이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경영대상을 수상한 김민수 엘에스웨어 사장은 정보보안 솔루션 분야에서 국내의 시장을 선도하고, 매년 흑자경영을 기록하는 등 재무구조가 건실한 벤처기업인으로 평가받아 수상했다. 기술대상을 차지한 이상돈 토마토시스템 사장은 순수 독자 기술로 X인터넷·RIA·대학ERP 등 솔루션을 개발·보급해 국산 기술력의 세계화에 공헌한 점이 인정돼 받았다.

또 IT서비스 대상에는 40년 이상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국내 정보통신산업을 이끌어온 국내 최초의 IT서비스 전문기업으로서 금융·공공·국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선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정섭 KCC정보통신 사장이 수상했다. 글로벌솔루션파트너 대상엔 지난 10여년간 인도 타타 그룹(옛 호주FNS)의 코어뱅크 솔루션인 '뱅크(BANCS)'를 공급하면서 은행·카드 등 굴지의 금융기관에 차세대 시스템 프로젝트를 구축해온 조중기 큐로컴 사장이 받았다.

10개 부문별 수상자 선정·수상

베스트솔루션부문에는 추정호 퓨쳐누리 사장이, 베스트콘텐츠부문에는 윤충한 유니온앤이씨 사장이, 모바일부문엔 박경양 하렉스인포텍 사장이, 금융정보화부문에는 강봉원 우리에프아이에스 부장이, 정보통신설비부문에는 문중배 KTICC 사장이, IT전문가부문엔 김계철 비온드아이티 사장이 각각 수상했다.

베스트솔루션부문 대상을 수상한 추정호 퓨쳐누리 사장은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전자도서관 솔루션을 개발·공급해 국내 시장점유율 으뜸을 넘어 국산 기술력의 세계화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베스트콘텐츠부문 대상을 받은 윤충한 유니온앤이씨 사장은 국내 처음으로 영어회화 교육전문 소프트웨어와



▲ 창간22주년기념 하이테크 어워드는 IT 업계를 대표하는 2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개최됐다.

스마트미디어 전용 영어교육 콘텐츠를 개발·공급해 새로운 교육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그리고 모바일부문 대상을 차지한 박경양 하렉스인포텍 사장은 카드발급 및 관리모델인 신뢰기반서비스관리(TSM) 서비스를 세계적으로 표준화시킨 한편, 작년엔 국내 모든 카드사에 모바일카드발급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는 등 우리나라 모바일 산업발전과 글로벌화에 공헌한 점이, 정보통신설비부문 대상을 수상한 문중배 KTICC 사장은 38년 간 정보통신설비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정보통신망 품질향상 발전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학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정보통신설비의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킨 점이 인정돼 수상했다.

또한 금융정보화부문 대상을 차지한 강봉원 우리에프아이에스 부장은 금융정보시스템 전문가로서 외국환, 국제금융, 여·수신, 신용카드 등 다양한 은행 업무를 혁신적으로 개발·운영하고 금융권 처음으로 IT 아웃소싱을 성공적으로 실현·운영한 점이, IT전문가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계철 비온드아이티 사장은 25년간 IT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정보통신 발전을 한 단계 도약시켰을 뿐더러, IPAK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의 국가경쟁력을 크게 향상시켜 온 점이 인정됐다.

시상식에 앞서 김영실 본지 발행인은 "먼저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그간 선·후배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어서 이렇게 22주년 기념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양승택 운영위원장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는 국내 IT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만나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IT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참석자들 중 일부는 추첨을 통해 주최 측이 준비한 행운상을 거머쥐기도 했고, 모든 참석자들은 소정의 상품을 받았다. ●